

# 왜?

글 | 김 신 혜 · (아주 특별한 외출 - Summer Snow) 시나리오 / 감독



\*사진은 영화 속의 장면입니다.

어느 인생이든, 어느 가족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한 가지  
좁은 아픔과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어깨 위의 짐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늘은 이렇  
게 저마다 삶의 고통을 감당하게 하지만 그 수위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라 한다. 하지만, 가끔은 누가 봐도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너  
무 가혹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7년 전 그런 사람들을 만났었다. 아빠, 엄마, 딸, 그리고 태중의 아이까  
지네 식구.

돌도 안 지난 첫 아이가 자꾸 아파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름도 생소한 후  
천성면역결핍증. AIDS 라는 것이다. HIV바이러스에 감염돼 이미 발병을  
한 상태였던 것이다. 갓 태어난 내 아이가 왜? 왜 그런 병에 걸린단 말인가?  
아이의 엄마, 아빠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엄마, 아  
빠의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HIV 감염으로 이미 발병한 상태였다. 원인도  
알 수 없고, 결국 아이의 병은 부모가 물려준 것이었다. 이 가족의 청천벽력  
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시 아이 엄마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어  
디에서도,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때 방송이 다리가 되어 이 가족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전문 의료진에  
의뢰한 결과, 태중에서 미리 예방조치 하고 출산 시 혈액감염을 피할 수 있  
도록 처치하면 임신 중인 아이는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  
다.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둘째는 건강하게 태어나 잘 자라주었고, 첫째도  
몇 달을 넘기지 못하리라는 예상을 뒤엎고 지금까지 잘 견뎌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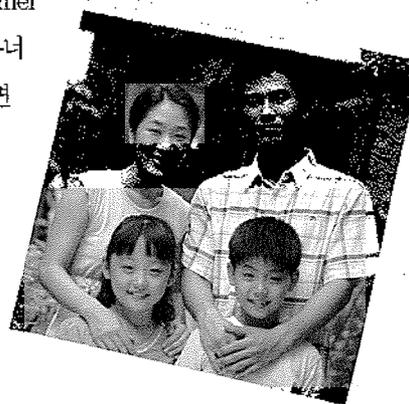
그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이  
같이야 할 빛으로 다가와  
그 아이들은 '에이즈'가 무슨 병인  
지도 모른다. 그저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위험  
하고, 티끌만한 상처에도 일회용 반창고를  
붙여가며 가족 간에도 서로 조심해야 하는  
좀 심각한 병이라고 알고 있다. 세상의 편견,  
차별 등 그 병이 안고 있는 또 다른 고통에 대  
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 그 아이들의 눈  
을 보며 진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세상이  
가장 아름다울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  
이 난다. 그 맑은 눈망울 속엔 반은 막연한  
슬픔이, 반은 무공해의 순수함이 담겨 있었  
다. 그 눈빛은 내내 좀처럼 잊혀지지 않았고,  
그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어김없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울렁거림이 가슴과 머리를 어지  
럽혔다. 무언가 내가 저들의 아픔을 덜어주  
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같이야  
할 빛처럼 가슴에 쌓이고 또 쌓여갔다. 결국  
해답으로 찾은 것은 푸닥거리하는 심정으로  
7년간의 속앓이를 30여분 영상에 토해내는

것이였다.

아직 우리 사회는 '에이즈'라는 말을 입에 담은 일조차 꺼리고, HIV 감염인에 대해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과 차별도 극심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비 감염인이 감염인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감염인이 비감염인을 훨씬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이다. 말 그대로 '면역결핍'인 그들은 비 감염인의 기침 한 번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 까지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편견과 차별에 떨시의 시선까지 던지는 비감염인의 생각도 상처가 된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벽을 쌓아 모두가 그 벽 속에 갇혀 막연한 두려움과 버려야 할 피해의식을 끌어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나는 영화 <아주 특별한 외출-Summer Snow>를 통해 그 벽을 조금이라도 무너 뜨려 보고 싶었다. 건강한 아이들이라면 하루에도 몇 번을 한달음에 오가는 집에서 동네 놀이터까지의 길을 생명을 건 모험처럼 떠나야했던 소년어를 통해 바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소통'이 아닌가... 했다. '소통'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우



려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엔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타인과 세상을 향해 저마다 벽을 쌓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 모두가 그 벽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영화 '아주 특별한 외출-Summer Snow'이 사람들에게, 주인공 소년이처럼 자산을 둘러싼 벽을 허물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기승 설래는 외출을 감행할 용기와 자극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영화감독으로의 데뷔작인 '아주 특별한 외출-Summer Snow'를 통해 나부터 벽을 허물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주인공 소연과 함께 아주 특별한 외출을 시작했다.

이 특별한 외출 속에서 나는 세상과, 사람들과 또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기쁨까지 얻었기에 졸작의 부끄러움까지도 감사하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감염인들의 아픔을 이야기 하는 첫 걸음이다. 정말 미약한 힘이나마 기회가 올 때마다 세상의 모든 벽이 사라질 때까지 해야 할 이야기들을 씩없이 해 나갈 생각이다.